산자부, 지역특화기술 개발 162억원 지원

산업자원부는 2002년도 지역특화기술 개발에 162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은 경남(기계), 부산·경남(신발), 광주(광산업), 대구·경북(섬유·염색) 등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해 산업현장의 애로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경남(기계) 75억원, 부산·경남(신발) 49억원, 광주(광산업) 25억원, 대구·경북(섬유·염색) 13억원 등이며, 관심있는 기업은 4월12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및 규모는 총개발비의 75%까지 지원하고, 과제당 연간 평균 1억2000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다. 단, 경남의 기계산업은 3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특화기술 분야별로 해당지역에 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주 참여기업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이며,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해 개발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개발 후 개발사업결과의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진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27>